

보도 일시	2026. 8. 14.(금) 12:00 <8. 15.(토) 조간>	배포일	2026. 8. 13.(목)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박준용 팀장(043-880-5821) 박중석 대리(043-880-5826)

[소비자안전주의보]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위조 화장품은 의류나 가방 등과 달리 피부와 점막에 직접 닿아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최근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충남경찰청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28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하고, 정품 기준 200억 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함. 이 중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 대해 조사함.

□ 조사대상 위조 화장품 32.4%(11개), 메탄올·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위조 화장품 34개를 대상으로 보존제, 메탄올, 중금속, 향료 등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32.4%(11개) 제품에서 메탄올, 납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9호)

위조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인 52.9%(18개)가 향수 제품이었는데, 이 중 33.3%(6개)에서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허용 기준(0.2% 이하)을 368배에서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이는 정품 향수를 제조할 때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순도 99.5% 이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1L당 에탄올은 약 110,000원, 메탄올은 약 14,000원에 거래

핸드크림 6개 제품 중 3개 제품(50.0%)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 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하 'MIT')이 각각 최대 15.1 ug/g, 5.7 ug/g 검출됐다.

립스틱 1개 제품(20.0%)과 바디미스트 1개 제품(20.0%)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CMIT가 각각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압수한 위조 화장품(3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구분	조사 대상	개	유해물질 검출			
			메탄올 [0.2% 이하]	납 [20ug/g 미만]	CMIT [불검출]	MIT [불검출]
향수	18개	6개	6개 (73.7~96.9%)	-	-	-
핸드크림	6개	3개*	-	-	3개 (128~151ug/g)	3개 (5.0~5.7 ug/g)
립스틱	5개	1개	-	1개 (31.0ug/g)	-	-
기타 (바디미스트, 파운데이션 등)	5개	1개	-	-	1개 (0.6ug/g)	-
계	34개	11개	6개	1개	4개	3개

*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동시에 검출

※ [] 안전 기준, () 실 검출량

□ 위조상품 거래,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안전 침해 위험 높아

위조상품 거래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 교란은 물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특히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주요국의 위조상품 피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2024)」에 따르면, 위조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약 33.3%는 가품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위조 화장품의 유통차단과 구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기업 자율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화장품의 경우 총 8개사가 참여 중

- 붙임 1.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안전성 조사 결과**
2.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사진
3. 소비자 주의사항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소비생활 중 불만·피해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 신청하세요.



1 조사 개요

- (목적) 위조상품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상품 내 유해물질의 소비자 신체 접촉 등에 따른 위해 우려가 커,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한 위해 예방 필요
- (조사대상)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등)
* 충남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 협조를 통해 범죄 압수 물품 확보
- (조사항목) 보존제(CMIT/MIT), 메탄올, 중금속, 향료(아트라놀, HICC) 등
- (조사기간) 2026. 4. ~ 5.

2 조사 결과

- 조사대상 34개 제품 중 32.4%(11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
 - (보존제) CMIT는 4개 제품(핸드크림 3종 바디미스트 1종), MIT는 3개 제품(핸드크림 3종)에서 검출
 -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MIT(Methylisothiazolinone):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관련 기준]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사용금지 물질
 - (메탄올) 향수 총 6개 제품에서 최소 73.7%부터 최대 96.9% 검출(안전기준 0.2%이하)
 - ※ 메탄올 체내 흡수 시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관련 기준]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허용 함량 0.2% 이하
 - (중금속) 립스틱 1개 제품에서 납 31.0 $\mu\text{g/g}$ 검출(안전기준 20 $\mu\text{g/g}$ 미만)
 - ※ 납 어린이의 성장 저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관련 기준]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허용 함량 20 $\mu\text{g/g}$ 이하

<압수한 위조 화장품(3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구분	조사 대상	개	유해물질 검출			
			메탄올 [0.2% 이하]	납 [20 $\mu\text{g/g}$ 미만]	CMIT [불검출]	MIT [불검출]
향수	18개	6개	6개 (73.7~96.9%)	-	-	-
핸드크림	6개	3개*	-	-	3개 (128~151 $\mu\text{g/g}$)	3개 (5.0~5.7 $\mu\text{g/g}$)
립스틱	5개	1개	-	1개 (31.0 $\mu\text{g/g}$)	-	-
기타 (바디미스트, 파운데이션 등)	5개	1개	-	-	1개 (0.6 $\mu\text{g/g}$)	-
계	34개	11개	6개	1개	4개	3개

*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동시에 검출

※ [] 안전 기준, () 실 검출량



향수(18개 제품)



핸드크림(6개 제품)



립스틱(5종) 및 기타 화장품(파우더(2종), 바디미스트, 파운데이션, 비누)

구매 전 주의사항

-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세요.**
 -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의 정보와 기존 구매자들의 리뷰(가품 의심 후기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내 정식 수입·유통 화장품에는 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없거나 인쇄가 조잡하다면 위조품인지 의심해보세요.
- **지나친 파격 특가는 우선 의심해보세요.**
 -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은 위조품일 수 있어 의심이 필요하며, '타임 세일', '한정 수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위조상품 구매 시 대처방안

-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위조상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피부염, 호흡 곤란, 시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우선 증거자료 수집 후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
 - 제품 외관, 로고, 바코드, 제형을 찍어두고,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문의 및 환불을 요청하세요.
- **판매자의 해명 이후에도 위조상품으로 의심된다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www.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하세요.**
 -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는 등 분쟁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